

광주시-금융공공기관, 대학생 취업 돕는다

ECONOMY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금융공공기관 지역본부 13개 기관과 지역인재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인재양성 활성화 협약...자산관리공사 등 13개기관 참여 채용 정보 제공·실무 강화 등 금융권 취업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가 금융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 금융공공기관들과 '지역 인재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

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공공기관의 지역 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경쟁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권 취업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

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권의 전문성과 광주시의 청년정책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금융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자-점프(G-JUMP)를 본격 운영한다.

G-JUMP는 광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12개 금융공공기관 지역본부가 참여한다.

광주시는 금융기관과 대학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고, 대학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자 선발 및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50여 명의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현직자 멘토링, 기관탐방, 금융공공기관 합동 취업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기업 공헌활동(ESG) 참여 등으로 구성된다.

강기정 시장은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에 전력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도 손을 맞잡아줬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는 취·창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전, 베트남과 원전·신사업 협력 강화 국영 기업들과 MOU 체결·워크숍 등 협력 확대 논의

한국전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정부, 국영 기업들과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한전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 한전과 팀 코리아, 원전 유관기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및 전력 신기술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전을 포함한 팀코리아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경험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베트남의 주요 관심분야인 원전 사업구도, 재원 조달, 금융지원제도, 인력양성, 기술 이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상호 논의했다.

14일에는 양국 장관급 협의체인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에서 베트남 정부, 산업계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국의 베트남 원전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산업공동위원회에서 한전은 베트남송전공사(EVNPT)와 전력망, 에너지 신사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HVDC(초고압 직류 송전), AC 송전망 구축과 운영 등 전력망 전반에 대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전은 베트남 주요 국영 에너지 기업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 님투언-1 원전사업자인 베트남전력공사(EVN)와 님투언-2 원전사업자인 베트남석유공사(PVN)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사업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원전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탄소저감 기술,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응우옌 티 타이 베트남 국부 의장과의 면담에서 원전 도입을 위한 베트남 국회차원의 입법현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원전뿐만 아니라 신기술 신사업 분야 진출의지를 피력하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베트남의 원전 도입 정책은 시의 적절한 판단"이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신사업 분야에서 베트남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혁신농어 먹고 원기회복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층 식품행사장에서 17일까지 '좋은 대추제'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어 대표 산지인 흑산도수협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코드를 받아 인증된 흑산도 홍어를 비롯해 국내 각 산지에서 어획된 홍어를 만나볼 수 있다. 홍어와 함께 하면 더욱 풍미가 좋은 막걸리도 판매한다. 흑산도산 홍어는 100g당 1만5000원, 국내산 홍어는 100g당 1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무역흑자 14억800만 달러...전년비 15.7% ↑

지난달 반도체·석유제품 등 부진에 수출 12.6% 감소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전년 동월대비 15.7% 증가한 14억800만 달러 흑자를 거뒀다. 다만 수출은 반도체, 가전제품, 석유제품 등 주력 업종의 부진으로 12.6% 감소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한 45억4700만 달러, 수입은 21.3% 감소한 31억39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4억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8억8400만달러)보다 59.3%, 전년동월(12억1700만달러)보다 15.7% 각각 늘어났다.

올해 들어 3월 말 누계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한 138억8400만 달러, 수입은 10.2% 감소한 108억2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4.8% 감소한 30억6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한 13억3800만 달러, 수입은 16.0% 증가한 7억1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2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448.3%)가 증가했고 화장품(-28.0%), 철강제품(-13.9%), 석유제품(-49.1%), 기계류(-8.1%)는 감소했다. 수입은 화장품(0.1%)이 증가했고 원유(-37.6%), 철광(-19.0%), 석탄(-26.3%), 석유제품(-2.5%)은 감소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전KDN-인터넷진흥원 사이버 보안 대응 협력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에너지 분야 공급망 보안관리체계 및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와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사이버위협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서는 협약 관련 기관들의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협약 서명, 향후 이행에 대한 다짐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에너지분야 공급망 관리체계 적용 및 기술 협력, 에너지 분야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협력, 글로벌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협약 이행을 위해 국가 전력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 사이버보안 관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 계통의 공급망 보안관리체계 구축, 국내외의 사이버보안 규정 준수 및 사이버위협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디지털 전문기관인 KISA는 공급망 보안 강화 사업에 기반한 에너지 분야 공급망 보안 취약점 점검과 보안컨설팅 지원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 시 준수해야 할 글로벌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정보통신(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발전하는 에너지산업 환경에서 사이버위협은 국가안보로 직결되기에 선제적 공급망 보안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급망 보안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에너지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급변하는 에너지분야의 디지털전환 환경에서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전력 계통 공급망 보안관리 체계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인 한전KDN과 공급망 보안에 특화된 KISA의 협업은 사이버보안의 전문화 및 고도화라는 좋은 시너지로 에너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지역 농협 3개 사무소가 14일~15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각 그룹별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 농협 3개 사무소, 'NH손해보험 연도대상'

서광주농협·송정농협·북광주농협 등 수상

농협 광주본부는 14일~15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광주지역 농협 3개 사무소가 각 그룹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부문에서는 서광주농협과 송정농협이 종합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북광주농협이 손일반보험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개인부문 시상에서는 △은상 이지영 과장(서광주농협) △동상 정은희 주임(서광주농협) △우수상 전은주 과장(서광주농협) 등 3명의 직원이 영예를 안았다.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보험 부문에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실의 증진 및 높은 고객 만족도를 높은 농협과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위해 헌신한 광주지역농협의 노고에 큰 상으로 이어져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유탑건설,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본격화

19일 DJ센터서 설명회...작년 12월 허가 최종 승인

㈜유탑건설은 오는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유탑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유탑건설이 추진 중인 사업 전반 개요를 비롯해 계통 연계 확보 상황,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사업 수익성 및 확장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등 정보가 소개된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신안군 일자면 재원리 인근 해상 61.26㎢ 면적에 설비 용량 323MW 규모다. 총 사업비는 약 2조원

에 달한다.

오는 2029년 착공해 2031년 준공, 2032년 상업운영이 목표다. 연간 약 88만 MWh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약 1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앞서 유탑건설은 2022년부터 풍황측정기 설치,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준비 과정을 실시했다. 또 2023년 8월부터 적용된 한층 강화된 발전사업 허가기준도 충족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최종 승인

받았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존 건설업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설계·시공·운영·유지관리 등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정병대 유탑그룹 회장은 "이번 발전사업 허가는 유탑의 기술력과 사업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유탑이 직접 시공과 운영까지 참여, 해상풍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